

한유의 비지문에 대한 후대 문인의 논평

남종진*

◁ 목 차 ▷

- I. 서론
 - II. 한유의 비지문과 역대 논평자료
 - III. '諛墓潤筆'의 논란에 대한 논평
 - IV. '隱惡揚善'의 본령에 대한 논평
 - V. '不再蹈襲'의 파격에 대한 논평
 - VI. 결론
-

I. 서론

중당 시기의 문인이자 사상가인 韓愈(768~824)는 중국 중세 산문의 질적 변화를 이끈 당송팔대가 가운데 핵심 인물이다. 그는 사상운동의 일환으로 고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700편이 넘는 시문을 남겼다. 그 가운데 산문은 331편을 차지하는데, 비지문은 모두 76편으로 그 비중이 높다.

중국에서 비석이나 묘지석에 글을 새겨 사용하는 비지문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남북조 시대에는 전통 산문의 한 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짓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되기 십상이고,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얽혀서 짓기 때문에 변지르르하게 꾸며지기 일쑤였다. 그런데 당나라 중엽에 이르자 비지문의 기술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인물의 선정, 일화의 구성, 문장의 수사, 작자의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파격을 통한 창조로 나타났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가 있었다.

한유는 천편일률적이고 사교적인 글로 낮게 평가되던 비지문에 파격적이고 창조

* 건국대학교 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

적인 기법을 접목하여 그 작풍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훗날 송나라의 고문가 歐陽脩, 명나라의 문장가 歸有光 등 비지문의 명가들에게 전해져 비지문의 질적 변화를 이루었고, '개인의 역사를 기록한 글'이라는 내적 속성이 부각되면서, 비지문은 마침내 전통적인 전기문학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 논자들은 비지문도 어엿하게 문학적인 글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한유의 비지문에 대하여 후한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한유의 비지문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데는 한유의 시대 이후로 많은 문인, 학자, 평론가들이 내놓은 긍정적 논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남송 사람 李塗는 한유가 비지문 기술에서 내보인 창조적 측면을 일러 「한편 한편이 다르고, 사람마다 제각각(篇篇不同, 一人一樣)」이라고 감탄하였고, 청나라 학자 章學誠은 비지문 기술에 있어서 한유의 지위를 성당의 시인 杜甫에 비겨 「한유의 비지, 두보의 율시(韓碑杜律)」라고 말하였다. 물론 한유의 비지문이 보여준 과격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예컨대 명나라 고문가 茅坤은 한유의 비지문은 「《史記》와 《漢書》의 서술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였다(不得史漢序事法)」고 지적하였고, 청나라 후기의 고문가 曾國藩은 「옛 규범을 잃었다(已失古意)」고 깎아내렸다.

본고에서는 북송 이래로 청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인과 학자들은 한유의 비지문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 대략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유의 비지문에 대한 후대의 보편적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비지문이 전통적 규범과 행문의 격식을 고수하는 것과 그런 규범성을 깨고 문학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데에서 생기는 충돌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II. 한유의 비지문과 역대 논평자료

‘碑誌’는 ‘碑銘’과 ‘墓誌’를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인물의 신원과 생애를 적은 글을 비석이나 묘지석에 새겨 무덤 앞에 세우거나 부장하는 일은 한나라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공적을 비석에 새겨 기념하는 일은 그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문집에 수용되어 전통 산문의 하나가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로, 남조 양나라

사람 蕭統이 《文選》을 편찬하면서 비지를 ‘비석’과 ‘묘지’의 두 가지로 나누어 실으면서부터이다. 비지는 남북조시대에 북조를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었고, 당나라 이후로는 그 용도가 늘어나며 종류가 세분되다가, 청나라 때에 姚鼐가 《古文辭類纂》을 편찬하며 ‘비지류’로 귀납시킨 이래로 오늘에 이른다. 비지문은 다시 무덤에 사용하는 墓碑·墓誌·神道碑, 사당에 세우는 廟碑, 공덕을 칭송하여 세우는 기념비로 나뉘는데, 대부분 대상인물의 생애, 공적, 덕망을 기록하여 내용상 전기적 성격이 강하다.

한유의 문인 李漢이 편찬한 《昌黎先生集》을 보면, 한유가 평생 동안 지은 詩 381편, 賦 4편, 산문 331편 등 모두 716편이 수록되어 있는데,¹⁾ 수록된 산문 가운데 비지문은 모두 76편으로, 전체 산문 가운데 23퍼센트에 이른다.

한유의 비지문은 墓誌銘 54편, 墓碑 4편, 神道碑 9편, 廟碑 7편, 碑 5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²⁾ 이렇게 보면 묘지명을 비롯한 묘도문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그 제목에 따라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묘지명은 다시 묘지, 묘명, 묘지명, 광명으로 나누고, 묘비는 묘비와 묘갈명으로 나누는 식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글의 구성 방식, 비석이나 묘지석의 형태, 사용 대상 등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 것일 뿐, 그 문체적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³⁾ 《창려선생집》에 수록된 한유의 비지문을 부류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1) 李漢 《昌黎先生集·序文》：「長慶四年冬，先生沒。門人隴西李漢，辱知最厚且親，遂收拾遺文無所失墜，得賦四，古詩二百一十，聯句十一，律詩一百六十，雜著六十五，書·啓·序九十六，哀辭·祭文三十九，碑誌七十六，筆·硯·鱗魚文三，表狀五十二，總七百，并且錄合爲四十一卷，目爲昌黎先生集。」
- 2) 여기에는 遺文에 제목만 있는 〈相州刺史中丞田公故夫人魏氏墓誌銘〉이 포함되는데, 이 작품은 한유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의문이 있다. 즉 南宋 朱熹는 이 글은 한유가 지은 글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朱熹 《昌黎先生集考異》卷9：「今按，此篇不類公他文，且云元和八年，則又非少作，其非公作無疑，今刪去。」
- 3) 묘지명을 예로 들면, 誌文만으로 구성하면 墓誌, 銘辭만으로 구성하면 墓銘, 지문과 명사를 모두 사용하면 墓誌銘이라고 부른다. 또 개별적 용도, 사용 재질, 사용 대상 등에 따라 墓記, 葬誌, 埋銘, 壙誌, 壙銘, 榔銘, 權厝誌, 歸祔誌, 遷祔誌, 墓輓記, 墓輓銘, 壙誌銘, 壙銘, 華表銘, 葬銘, 窆石誌銘, 誌某, 續誌, 後誌, 蓋石文, 墳版文, 墓版文, 葬誌, 墳記, 壙誌, 壙銘, 塔銘, 塔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부 류		편 수
墓誌銘類	墓 誌	3
	墓 銘	6
	墓 誌 銘	44
	墳 銘	1
墓 碑 類	墓 碑	1
	墓 碣 銘	2
神道碑類	神 道 碑	1
	神道碑銘	3
	神道碑文	2
	殯 表	1
廟 碑 類	廟 碑	5
	廟 碑 銘	2
碑 類	碑	4
	碑 文	1
계		76

한편 송나라 이래로 한유의 비지문을 논평한 인물은 대개 문인, 학자, 문헌학자 등인데, 송나라 이래로 청나라까지 주요한 인물로는 북송의 范仲淹, 남송의 李塗, 劉克莊, 吳子良, 黃震, 원나라의 程端禮, 陶宗儀, 명나라의 吳訥, 唐順之, 茅坤, 王世貞, 郭正域, 陳繼儒, 청나라의 林雲銘, 儲欣, 何綽, 方苞, 姚範, 章學誠, 曾國藩, 康有爲, 過珙 등이 있었다. 그들이 논평을 남긴 문헌은 독서후기, 시문선집, 시문평론, 문체론집, 소품문집, 역사논집, 필기문집, 학술논평 등으로 다양하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논평은 전문적 평론이기보다는 대개 독서후기이거나 아니면 작품을 선별하여 신고 코멘트를 덧붙인 촌평이 대부분이다.

논평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유의 비지문에 나타난 전체적 특징이나 그 역사적 지위를 개괄하여 논평한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退之[韓愈]가 지은 묘지는 글이 간략하고, 子厚[柳宗元]가 지은 묘지는 글이 풍성한데, 제각기 자신의 장점을 뽑냈다.(退之銘墓其詞約, 子厚銘墓其詞豐, 各炫其長也.)⁴⁾

韓公[韓愈]은 비지류에 있어서 가장 웅대하고 기이하고 기력이 넘치며 아주

4) 范仲淹《對牀夜話》卷1.

예스럽기까지 하다.(韓公於碑誌之類, 最爲雄奇有氣力, 亦甚古.)⁵⁾

비문은 한 공이 으뜸인데, 비석 하나하나마다 글을 지어 말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앞전의 것을 절대로 되써먹지 않았다.(碑文惟韓公最高, 每碑行文言, 人人殊面目, 首尾決不再行蹈襲.)⁶⁾

육조 시대에는 변려문으로 사람들의 지명을 지었는데, 족보를 펼쳐놓고 관직을 치장하여 사람을 가지고 賦를 짓는 것에 다름이 없었고, 정직한 마음은 없었다. 그 때문에 한유와 유종원을 비롯한 사람들은 《사기》와 《한서》에서 사실을 기록한 것을 따르려고 노력하여 어지러움을 헤쳐 나갔다. 그들이 한 일은 본래 고루한 것을 바꾸려는 것이었지만 크게 발전하고 널리 알려졌는데, 한유는 후세에 우러러 받드는 인물이 되어, 문인들은 '한유의 비지, 두보의 읍시'라고 칭송하였으니, 실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六朝駢麗, 爲人誌銘, 鋪排郡望, 藻飾官階, 殆於以人爲賦, 更無質實之意. 是以韓柳諸公, 力追史漢敘事, 開闢秦蕪. 其事本爲變古, 而光昌博大, 韓爲後世宗師, 文家稱爲韓碑杜律, 良有以也.)⁷⁾

이런 논평들은 대부분 한유의 비지문이 지닌 문체적 특징, 창의적이고 다양한 면모, 역사적 지위 등을 개괄하였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개별적 특징을 논하거나 아니면 해당 작품을 읽은 소감을 짧막하게 토로한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왕적묘명〉⁸⁾은 괴상한 글로 강단 있는 선비를 그렸는데, 정말로 볼 만하다.(王適墓銘, 以怪文狀強士, 極可觀.)⁹⁾

《한서》와 《후한서》의 〈유림전〉보다 뛰어나다.(勝兩漢儒林傳.)¹⁰⁾

서사에 의론을 끼워 넣어 복잡한 사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 사마천의 〈백이열전〉이나 〈굴원열전〉과 무척 닮았다.(於敘事中夾入議論, 曲折淋漓, 絕類史

5) 王世貞《讀書後》卷3〈書韓文後〉.

6) 陶宗儀《南村輟耕錄》卷9〈作文宗旨〉.

7) 章學誠《文史通義》卷8〈墓銘辨例〉.

8) 《韓昌黎集》卷28에 수록된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이다.

9) 黃震《黃氏日鈔》卷59.

10) 儲欣《唐宋十大家全集錄》卷5〈施先生墓誌銘〉.

公伯夷屈原二傳.)¹¹⁾”

창려[한유]의 묘지 가운데서 으뜸이고 고금의 묘지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한유가 유자후의 묘지명을 기록한 것은¹²⁾ 태사공이 李 將軍의 傳을 지은 것¹³⁾과 같은데, 이것을 짓느라 온 힘을 남김없이 쏟았을 것이다.(昌黎墓誌第一, 亦古今墓誌第一, 以韓誌柳, 如太史公傳李將軍, 爲之不遺餘力矣.)¹⁴⁾

이런 논평들은 한유의 비지문 작품 하나하나에 나타난 인물의 형상, 문체적 특징, 표현의 수법 등에 대한 인상비평에 가깝다.

전자처럼 논평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부류의 논평에서는 과거 문인과 학자들이 한유의 비지문을 어떤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가치가 높다고 여겼는지 살필 수 있다. 반면 후자처럼 논평한 사례는 대단히 많은데, 이런 부류의 논평에서는 과거 문인과 학자들이 한유의 비지문 작품의 개별적 면모와 특징을 비지문의 전통적 규범과 격식에 견주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필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본고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송나라 이래로 청나라까지 한유의 비지문을 논한 인물과 자료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시대	논평자	생몰년	논평의 출처	문헌성격
北宋	范仲淹	989~1052	《對牀夜話》	독서후기
南宋	李 塗	? 1147 ?	《文章精義》	문장평론
	劉克莊	1187~1269	《後村詩話》	시문평론
	吳子良	1198~1257?	《荊溪林下偶談》	시문평론
	黃 震	1213~1281	《黃氏日鈔》	독서후기
元	程端禮	1271~1345	《昌黎文式》	문장평론
	陶宗儀	1329~1410	《南村輟耕錄》	필기문집
明	吳 訥	1372~1457	《文章辨體序說》	문체론집
	唐順之	1507~1560	《唐宋八大家文鈔》	문장선집

11) 過珙《古文評注》卷7〈柳子厚墓誌銘評語〉.

12) 《韓昌黎集》卷32에 수록된〈柳子厚墓誌銘〉이다.

13) 《史記》卷109에 수록된〈李將軍列傳〉이다.

14) 儲欣《唐宋八大家類選》卷13.

15) 본고에서는 吳文治《韓愈資料匯編》(4冊)(北京, 中華書局, 2006)을 기초자료로 삼고, 여기에 다른 문헌의 기록을 더하였다.

	茅 坤	1512~1601	《唐宋八大家文鈔》	문장선집
	王世貞	1526~1590	《讀書後》	독서후기
	郭正域	1554~1612	《韓文杜律》	시문선집
	陳繼儒	1558~1639	《狂夫之言》	소품문집
清	林雲銘	1628~1697	《韓文起》	문장고증
	儲 欣	1631~1706	《唐宋十大家全集錄》	문장선집
	何 綽	1661~1722	《義門讀書記》	독서후기
	方 苞	1668~1749	《望溪先生文集》	시문별집
	姚 範	1702~1771	《授鵝堂筆記》	필기문집
	章學誠	1738~1801	《文史通義》	역사논집
	曾國藩	1811~1872	《求闕齋讀書錄》	독서후기
	林 紆	1852~1924	《韓柳文研究法》	문장평론
	過 珙	?~?	《古文評注》	문장선집

Ⅲ. ‘諛墓潤筆’의 논란에 대한 논평

송나라 이래로 한유가 지은 비지문에 대해서 ‘諛墓’의 논란이 있었다. ‘유묘’는 죽은 자에게 아첨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비지문을 번지르르하게 지어주고 그 유족에게서 금전적 대가를 후하게 받는 일을 말한다. 한유가 ‘유묘’를 하였다는 논란은 《新唐書》에 실린 짧은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劉叉는) 논쟁으로 빈객을 이길 수 없자 한유의 황금 몇 근을 가로채 떠나며 「이것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얻은 것일 뿐이니 내게 주고 장수를 누리는데 낫소.」라고 하였다.(以爭語不能下賓客, 因持愈金數斤去, 曰: 此諛墓中人得耳, 不若與劉君爲壽.)¹⁶⁾

유차라는 인물은 元和 연간(806-820년)에 살았던 사람으로 시에 능하고 의협심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런 그가 한유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가 떠나가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로 사람들은 유차가 들먹인 돈을 ‘諛墓金’이라고 불렀다. 이 기록에 따라 후세에는 한유가 죽은 사람을 미화하는 비지문을 지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유묘’의 시비가 불거졌다. 한유의 ‘유묘’ 논란에 대하여 역대로 논평

16) 《新唐書》卷176 〈劉叉傳〉.

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첫째, 당시에는 유묘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기에 한유의 '유묘'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북송의 문인 范仲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퇴지의 〈號州司戶韓炭墓〉¹⁷⁾ 한급의 부친과 조부의 능력만 칭송하였고 …… 〈殿中少監馬君墓〉은 40년 동안에 삼대를 떠나보낸 일을 애도하였을 뿐이다. …… 옛 사람의 비지는 사실 거짓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만도 않고 정말로 무덤에 아부한다.(退之之號州司戶韓炭墓止稱其父祖之能, …… 若殿中少監馬君墓, 則哀其四十年間哭三世耳. …… 古人誌實不少假, 今則不然, 眞諛墓也.)¹⁸⁾

이 글에서 범중엄은 한유의 몇몇 비지문을 적시하여, 이것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보다 가문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유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대의 역사학자 范文瀾도 「당나라와 송나라 이후로 문인이라는 자들은 대부분 '유묘'를 일삼았다. 한유는 '明道'를 자임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들먹일 필요조차 있겠는가?」¹⁹⁾라고 하여, 한유가 사회의 기풍을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한유가 비지문을 써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비지문 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관행이었다고 두둔하거나, 또는 전하는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옹호하는 입장이다. 청나라 학자 顧炎武는 비지문을 써주고 사례를 받는 일은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蔡邕의 문집에는 당시 귀한 인물의 비문과 誄辭가 대단히 많다. 예컨대 胡廣과 陳寔은 비문이 세 편씩이고, 橋玄·楊賜·胡碩은 비문이 각각 두 편씩이다. 袁滿來는 나이가 열다섯 살이고 胡根은 나이가 일곱 살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위하여 모두 비문을 지었다. 스스로 번지르르하게 가필하는 것을 이롭게 여긴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 문인들이 (비지문을 지어주고) 의롭지 못한 재물을 받은 것이 어찌 한유의 유묘금 뿐이었겠는가!(蔡伯喈

17) 《韓昌黎集》卷35 에 수록된 〈號州司戶韓府君墓誌銘〉이다.

18) 范仲淹《對牀夜話》卷1.

19) 范文瀾《墓誌銘考》: 「唐宋以下, 凡稱文人, 多業諛墓, 退之明道自任, 猶或不免, 其他更何足數。」(《文心雕龍注》卷3〈誄碑〉附錄)

集中，爲時貴碑誄之作甚多。如胡廣·陳寔各三碑，橋玄·楊賜·胡碩各二碑。至於袁滿來年十五·胡根年七歲，皆爲之作碑。自非利其潤筆，不至爲此。……文人受賕，豈獨韓退之諛墓金哉!)²⁰⁾

한편 송나라 사람 劉克莊은 한유의 '유묘' 논란은 과장되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劉又는 퇴지가 무덤에 아첨하였다고 비웃었지만 유독 한유뿐일까? 蔡中郎(蔡邕)은 평소에 비문을 지었지만 〈郭有道碑〉에서만큼은 부끄러운 말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였으니, 다른 비문에는 부끄러운 구석이 많았을 것이다. …… 역사 기록에는 예로부터 글을 팔아 재물을 얻은 인물로 李邕보다 더 한 자는 없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法善의 무리에게 번지르르하게 써준 것이 아니겠는가? 설령 모두 郭泰를 위하여 비문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昌黎가 어떻게 황금을 몇 근씩이나 얻었겠는가?(劉又嘲退之諛墓，豈惟退之哉? 蔡中郎自謂平生作碑，惟於郭有道無愧詞，則他碑有愧者多矣。……史謂自古鬻文獲財，未有如邕之盛，豈非法善輩潤筆耶? 使皆爲郭泰作碑，昌黎安得數斤之金?)²¹⁾

이처럼 역사서에 기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지문을 써주고 사례를 받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기에 한유도 그런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감싸는 입장은 역대 평론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인 태도이다.

셋째, 한유는 결코 '유묘'한 일이 없으며 단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비지문 기술의 특수한 과정을 이해하고, 또 한유가 지은 비지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유는 결코 의도적으로 비지문을 지어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송나라 사람 吳子良이 이런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유가 지은 수십 편의 묘지명은 때로는 풍간과 권면이 담겨 있으니 사실 근거 없이 칭송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다. …… 역사기록에 따르면, 劉又라는 자는 한유의 황금 몇 근을 가로채 떠나며 「이것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얻은 것일 뿐이니 내게 주고 장수를 누리는 게 낫소」라고 하였다. 한유는 강직하여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아첨하여 부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아첨하여 금전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다만 그가 王用에게 지어준 〈신도비〉

20) 顧炎武《日知錄》卷19〈作文潤筆〉.

21) 劉克莊《後村先生大全集》卷175〈詩話〉.

의 경우는 안장을 엮은 말과 백옥으로 만든 띠를 사례로 받았으나, 글을 지어주고 나서 받았다. 여기에서는 한유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다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유차는 소인배로, 금품을 뜯어내려고 말을 지어냈을 뿐이다.」(退之作銘數十, 時亦有諷有勸, 諒非特虛美而已. …… 史稱劉叉者, 持去退之金數斤, 曰: 此諛墓中人而得之者, 不如與劉君爲壽. 以退之剛直, 不肯諛生人取富貴, 乃能諛墓中人而得金耶! 獨其與王用作神道碑, 所得鞍馬白玉帶, 蓋表而後受. 退之於此, 固未能免俗, 然他無所見也. 又小人, 欲奪金而設辭耳.)²²⁾

한유가 비지문을 지은 동기도 인간관계와 또 그에 따른 청탁 때문이어서²³⁾ 그 당시의 비지문 기술 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묘'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아무튼 인간관계 때문에 아무에게나 글을 지어주는 것, 그러니까 기록할 만 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기록한 내용은 진실하고 공정한지 하는 논란은 묘비를 처음 사용한 후한 무렵부터 이미 불거진 문제였다. 앞서 유극장의 언급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중국 최초의 비지문 작가인 후한 사람 蔡邕은 「나는 남의 銘文을 지으며 이제껏 부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郭有道碑〉에서 칭송한 것만큼은 부끄럽지 않다.»²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은 자신이 지은 묘비문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자기고백이다. 당나라 이후에는 비지문 사용이 늘면서 기술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더욱 커졌다. 그래서 「대부분 '무덤에 아첨한 글[諛墓之文]'이었는데, 당연히 '번지르르하게 써준 대가[潤筆之資]'를 얻기 위한 유묘의 글이 많았다.»²⁵⁾ 옛 문헌기록에서 당나라 때의 사례를 찾아보면, 앞서 유극장의 언급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성당의 서예가 李邕(678-747)은 비지문 수백 편을 지어 주고 큰 대가를 챙겨 “자고로 글을 팔아 돈벌이를 한 자로 이용만한 사람이 없었다”

22) 吳子良《荊溪林下偶談》卷1〈退之作墓銘〉.

23) 예컨대 〈李元賓墓銘〉(李觀)이나 〈南陽樊紹述墓誌銘〉(樊紹述)은 벗이나 동료들 위하여 지은 것이고, 〈處士盧君墓誌銘〉(盧於陵)[처남]이나 〈號州司戶韓府君墓誌銘〉(韓岌)[사촌]은 혈연이나 인척 관계에서 지었으며, 〈監察御史元君夫人韋氏墓誌銘〉(元稹의 처 韋叢)은 지인의 부인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나머지 작품들도 대부분 고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지은 것이다.

24) 《世說新語》卷1〈德行〉의 劉孝標 注에서 《續漢書》의 기록을 인용하여 한 말로, 「吾爲人作銘, 未嘗不有慚容, 唯爲郭有道碑頌無愧耳。」라고 하였다.

25) 劉衍, 〈論唐宋散文的特質〉(《中國古代散文研究》,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1), 193-194쪽 참조.

는 비난을 받았다.²⁶⁾ 또 중당의 문인 元稹(779-831)의 가족은 원진의 묘지명을 지어준 白居易에게 60~70만전 상당의 器物을 사례로 건넸고,²⁷⁾ 만당의 시인 杜牧(803-852)은 〈韋丹遺愛碑〉를 써주고 비단 300필을 사례로 받았다.²⁸⁾ 이런 상황 때문에 비지문에 대한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역겨운 글'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 근본 원인은 비지문의 특수한 기술 과정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명나라 학자 徐師曾은 「말류에 이르러서는 문인의 손을 빌어 현재의 것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꾸미는 일이 흔해졌다.»²⁹⁾라고 꼬집었다. 전통적으로 비지문은 작자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여기에는 친분이나 경제적 대가가 기술의 동기 내지 매개가 되었는데, 가문의 선양을 꾀하는 가족이나 일가, 동료나 제자들과 작자가 혈연이나 지연 따위의 친분으로 얽혀 있거나, 아니면 소정의 대가를 받고서 '응수'하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청탁자는 인물의 현부를 따지고 앉았고 심지어 「악덕한 인물일 지라도 지명을 새겨 후세에 과시하려 애썼는데」³⁰⁾, 작자는 「거절하기 어렵고」 또 「인정상 고인의 나쁜 행적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명이 사실과 다를 수밖에」³¹⁾ 없게 된 것이다.

한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와 청탁에 따라 비지문을 지었기 때문에 역시 유묘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그가 지은 글 가운데는 대상 인물이 비지문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들이 있었다. 후대에 논평자들은 그것을 유묘의 근거로 보기도 하였으나, 더 많은 논평자들은 유묘의 논란이 과장되

26) 《新唐書·文苑傳》：「邕之文，於碑頌是所長，人奉金帛請其文，前後所受鉅萬計。」
《新唐書·皇甫湜傳》：「受納饋遺，亦至巨萬，時議以爲自古鬻文獲財，未有如李邕者。」

27) 白居易 〈修香山寺記〉：「元氏之老，狀其臧獲與馬綾帛泊銀鞍玉帶之物，價當六七十萬，爲謝文之贄，來致於予。」(《全唐文》卷676)

28) 杜牧 〈謝許受江西送撰韋丹碑采絹等狀〉：「聖旨令臣領江西觀察使紇干衆所寄撰韋丹遺愛碑文人事彩絹三百匹。」(《全唐文》卷750)

29) 徐師曾 《文體明辨序說》〈墓誌銘〉：「迨夫末流，乃有假手文士，以謂可以信今傳後，而潤飾太過者，亦往往有之。」

30) 曾鞏 〈寄歐陽舍人書〉：「及世之衰，人之子孫者，一欲褒揚其親而不本乎理，故雖惡人，皆務勒銘，以誇後世。」(《曾鞏集》卷15)

31) 曾鞏 〈寄歐陽舍人書〉：「立言者旣莫之拒而不爲，又以其子孫之所請也，書其惡焉，則人情之所不得，於是乎銘始不實。」(《曾鞏集》卷15)

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한유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비지문을 짓지는 않았으므로 유묘 시비는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오늘날 논자들은 한유가 지은 비지문 가운데는 '유묘'의 글이 분명히 있지만 비지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신뢰할 만한 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죄다 '유묘'로 매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다.³²⁾ 이런 평가는 훗날 《舊唐書》를 편찬할 때, 한유가 지은 70여 편의 비지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사료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³³⁾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IV. '隱惡揚善'의 본령에 대한 논평

남조 양나라 사람 劉勰은 「비문의 체제는 역사기술의 재주를 바탕으로 삼는다.³⁴⁾고 하였고, 원나라 사람 潘昂霄는 「碑版을 기술하는 데에는 역사를 서술하는 법도가 있다.³⁵⁾고 하였다. 이처럼 비지문은 '개인 역사의 기록'이라는 전기적 성격 때문에 흔히 역사기록에 비견된다. 그러나 역사기록이 해당인물의 행적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교훈을 모두 기술하는 것과 달리 비지문은 추켜세우기는 하되 깎아내리지는 않는다는 서술의 원칙 아래 대상인물의 단점이나 사소한 허물은 덮어둔다.³⁶⁾ 유험은 비지문은 「성대한 덕망은 맑은 풍도의 정화를 밝히고, 크고 아름다운 행적은 높고 큰 공적이 나타나게³⁷⁾ 기술한다고 하였다. 즉 비석이나 묘지석에 글을 새기는 것은 「훌륭함을 드러내려는 것이지 부족함을 들추려는 것이 아니다.³⁸⁾

32) 郭預衡 《中國散文史》(中冊)(上海, 上海古籍學出版社, 1993), 185-188쪽 참조; 陳必祥, 《古代散文體概論》(臺北, 文史哲出版社, 1995), 190쪽 참조.

33) 張新科, 〈韓愈柳宗元對中國古典傳記的貢獻〉, 《中國古典傳記論稿》(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1), 250-251쪽 참조.

34) 劉勰, 《文心雕龍》卷3〈詠碑〉: 「夫屬碑之體, 資乎史才。」

35) 潘昂霄, 《金石例》卷9〈評語〉: 「碑版蓋史法所在。」

36) 줄고, 〈中國傳統墓道文的本質과 記述原理〉; 《中國學報》제41집, 서울, 韓國中國學會, 2000, 59-61쪽 참조.

37) 劉勰, 《文心雕龍》卷3〈詠碑〉: 「標序盛德, 必見清風之華, 昭紀鴻懿必見峻偉之烈。」

38) 吳訥, 《文章辨體序說》: 「銘之義稱美, 不稱惡, 以盡其孝子孝孫之心。」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재한 덕행과 공적을 남겨야만 기술의 대상이 된다. 청나라 학자 黃宗羲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사람이 행위가 명문을 지을 만하면 규범대로 명문을 짓고, 그 사람이 행위가 명문을 지을 만하지 못하면 규범대로 명문을 짓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명문을) 짓고 짓지 않는 자체에 기림(褒)과 낮춤(貶)을 부치는 것이기도 하다.(其人行應銘, 法則銘之, 其人行不應銘, 法則不銘, 是亦褒貶寓於其間.)³⁹⁾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보면, 비지문을 짓고 말고는 살아생전의 행적에 달렸고, 비지문이 있고 없고는 곧 한 인물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지문을 짓는 행위는 곧 훌륭한 행적을 내보이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런데 후세의 논자들은 한유의 비지문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의문을 자주 제기하였다. 즉 대상인물이 비지문을 짓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는지, 또 대상인물의 행적을 비판하여 기술한 것은 타당한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첫째, 대상인물이 비지문의 기술 대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논평이다. 앞서 황종희가 지적한 것처럼 평생의 업적에 따라 비지문의 기술 여부가 결정되고, 비지문의 유무가 일생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비지문이 있다면 그 일생에는 긍정적 가치를 지닌 행적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유가 馬繼祖를 위하여 지은 〈殿中少監馬君墓誌〉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한 논자들이 많았다. 비지문의 규범대로라면, 마계조는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마계조는 고인이 된 한 개인의 덕망과 공적을 기술한다는 비지문의 본령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논자들은 이 글에 대하여 구구한 논평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청나라 학자 林紓는 이 글이 비지문의 기술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술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한유의 글은 찬란한 밝은 빛이 되어 사람을 비추는데, 사실 가늠하기 어렵다. 마계조는 부잣집 자식으로 우월한 구석이라고는 그려 넣은 것 같은 눈썹, 칠혹 같은 머리, 옥과 같고 눈과 같은 뺨과 피부가 귀여울 뿐이다. 이런 모습이야 부귀한 가문에서 자란다면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

39) 黃宗羲《南雷文案》卷3〈與李杲堂陳介眉書〉.

이 따위 격식은 우연히 나올 수는 있어도 늘 지어서는 아니 된다. 어차피 (기록할 만한) 사실이 없다면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옳다.(空然無可著筆, 而昌黎文字, 乃燦爛作珠光照人, 眞令人莫測. 繼祖紈袴兒耳, 所長處眉眼如畫, 髮漆黑, 肌肉玉雪可念耳. 此等狀態, 凡長於富貴家襁褓中, 誰則無之. …… 凡此等體, 皆可偶而不可常. 旣無事實, 寧不作可也.)⁴⁰⁾

〈전중소감마군묘지〉는 마계조를 대상으로 지은 것이지만, 한유가 기술한 마계조의 행적은 작자가 오래 전에 목격한 유아시아 마계조의 모습이 전부이다. 작자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강보에 싸여 있던 마계조를 「옥처럼 아름답고 난초새싹처럼 어여뻐다」라고 묘사하였다.⁴¹⁾ 나머지는 마계조 집안과의 삼대에 걸친 인연을 회상하는 데에 지면을 죄다 할애하였다. 마계조에 대한 기록이 너무도 소략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사람 程端禮는 「필치가 영험한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 같아서 그 오묘함을 헤아릴 수 없다」며 감탄하고, 이어서 「이 글은 아쉽게도 빠진 것이 있어서 그 전체를 볼 수 없다」⁴²⁾라고 지적하였다.

사실 한유는 마계조에 대해서 정작 쓸거리가 없자 그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대신 가문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지면을 채워나가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한 더 많은 논평은 비지문의 본령에 연관된 문제보다 이 글이 갖는 과거성에 훨씬 많이 쏠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하겠다.

〈전중소감마군묘지〉처럼 비지문의 기술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고 논자들이 지적한 글로는 〈李元賓墓銘〉이 있다.⁴³⁾ 청나라의 고문가 方苞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이원빈은 나이가 서른 살도 되지 않아서 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덕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銘辭에서는 「재주는 당대에 드높았고, 행동은 옛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하였으니, 이것 말고 더 말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夫元賓年不及三十, 其德未成, 德未著, 而銘辭有曰, 才高乎當世, 而行出乎古人, 則外此尙安有可言者

40) 林紓《韓柳文研究法》〈韓文研究法〉〈殿中少監馬君墓誌〉.

41) 韓愈〈殿中少監馬君墓誌〉: 「當是時, 見王於北亭, 猶高山深林鉅谷, 龍虎變化不測, 傑魁人也, 見少傅, 翠蘭碧梧, 鸞鵠停峙, 能守其業者也, 幼子娟好靜秀, 瑤環瑜珥, 蘭茁其芽, 稱其家兒也。」(《韓昌黎集》卷33)

42) 程端禮〈殿中少監馬君墓誌〉: 「筆如神龍變化, 莫測其妙. 此文惜乎有缺, 不得見其全也。」(《昌黎文集》卷2)

43) 《韓昌黎集》卷24에 수록되어 있다.

乎?)⁴⁴⁾

사실 <이원빈묘명>을 보면 신원사항, 간단한 이력, 장례관계를 제외하면 달리 기술한 내용이 없다. 때문에 명나라 문인 唐順之는 「李觀은 본래 文士이고 또 한 공의 벗인데, 어찌서 드러낸 것이 이처럼 간략한지 모르겠다.」⁴⁵⁾며 의구심을 보였다. 또 원나라 사람 程端禮는 「元賓의 文行을 칭송한 것이 겨우 열 글자로 소략한 것도 같으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⁴⁶⁾라고 평하였다. 이원빈은 한유와 동년급제한 李觀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본전에 따르면, 이관은 24세에 진사가 되고, 후에 태자교서랑을 지내고 29세로 도성에서 객사한 인물이다.

필자가 보건대, 한유가 이런 기술 수법을 구사한 것은 그가 나름대로 골몰하여 얻어낸 대안이었을 것이다. 마계조와 이원빈은 모두 묘지명을 지을만한 남은 행적은 없었다. 하지만 가문과의 인연이나 동년급제한 인연 때문에 부득이 집필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근거 없는 가필이나 윤색을 피하려니 부득이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회상하며 주변만을 건드리거나 알려진 행적만을 기술하여 비지문의 신뢰성을 지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즉 대상인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적 사실만 기술하고, 그 내용은 소략하더라도 근거 없는 가필을 피함으로써 진실성을 지키려고 애 쓴 것이다. 따라서 한유가 지은 이런 비지문은 유묘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록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설적 면모가 있다.

둘째, 비지문에서 대상인물의 행적을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평이다. 사실 비지문에서 대상인물을 비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지문이 지닌 또 하나의 본령인 '포양의 원칙'과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유가 지은 비지문 가운데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故太學博士李君墓誌銘>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⁴⁷⁾ 송나라 범중엄은 「<태학 박사이우묘>는 그가 단약을 복용한 잘못만을 따졌다.」⁴⁸⁾라고 지적하였는데, 한유는

44) 方苞《方苞集》卷6〈與孫以寧書〉.

45) 唐順之〈李元賓墓誌〉:「李觀本文士, 而又爲韓公之友, 不知發之何以如此其略也.」
《唐宋八大家文鈔·韓文》卷14)

46) 程端禮《昌黎文式》卷1〈李元賓墓誌〉.

47) 韓愈《韓昌黎集》卷34〈故太學博士李君墓誌銘〉.

48) 范仲淹《對牀夜語》卷4:「太學博士李于墓惟辨其服藥之誤.」

이 글에서 불로장생을 꿈꾸며 단약을 복용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불귀의 객이 되어 떠난 李于의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고 그런 풍조가 만연된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래서 후세에는 이 글을 심하게 비판한 논평자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상 인물의 떳떳하지 못한 구석을 들춰냈기 때문이다. 청나라 문인 儲欣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한 공이 세상을 일깨우려 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글을 지어 전하지 않고 이우의 묘지에서 그런 사실을 적었을까? 묘지는 행적을 기술할 뿐이며, 또 훌륭한 점은 드러내지만 나쁜 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한 공의 이런 문체는 결코 후세 사람들이 배워서 는 아니 된다.(公欲覺世, 何不著文以傳, 而施之李于之墓誌耶? 誌載行迹而已, 又揚美不揚惡. 公此體斷非後人所當學也.)⁴⁹⁾

저혼은 이 글이 비지문의 본령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단호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 유는 <고태학박사이군묘지명>에서 이우가 方士를 만나 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하혈을 하다가 4년여 만에 세상을 떠난 사실을 기술하고, 이어서 작자 자신이 알고 있는 유사 사례를 열거하여, 사실상 거의 전편에 걸쳐 단약 복용이 만연한 풍조와 그것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였다. 사실 비지문에서 이처럼 기술한 사례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한유는 비록 李虛中과 李道古의 비지문을 지으면서도 불로장생설과 단약 복용에 대한 일화를 기술하였지만, 그것은 전체 가운데서 한두 가지 이야기일 뿐이다.⁵⁰⁾

한편 청나라 何綽은 한유가 이런 글을 지은 것은 세상을 경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논평하여 앞서의 저혼과는 다른 관점을 내보였다.

자제의 무덤에 지문을 지으며 곧이곧대로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깊고 간절 하면서 의미는 뚜렷이 드러나고 필치 또한 깨끗하다. 당시 주상께서 방사들을 좋아하고 단약을 복용한 것을 선생께서 세상의 훈계로 삼은 것이기에 예들러 말한 것이다. …… 선생이 이 글을 지은 것은 경계하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단점을 들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글을 짓고 논리를 세우려면 모름지기 경중을 헤아려야

49) 儲欣《唐宋十大家全集錄》卷5〈碑誌〉.

50) 《韓昌黎集》卷28〈殿中侍御史李君墓誌銘〉(李虛中), 卷32〈唐故昭武校尉李公墓誌銘〉(李道古) 참조.

한다.(誌子弟墓, 不嫌於直, 深切著明, 筆力亦健. 時主好方士服金丹, 公之爲世誠者, 微詞也. …… 公作此文, 蓋所戒者遠, 不嫌於訐也. 凡作文立論, 須權輕重耳.)⁵¹⁾

이우는 한유에게는 형님의 손녀사위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글 속에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하작은 한유가 이우의 묘지명을 지은 것을 일러 '자제의 무덤' 운운한 것이다. 하작의 주장은 한유가 '세상을 훈계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부정한 사례를 끄집어내어 기술하고, 이것을 근거로 삼아 장황한 주장을 펼쳤다는 견해이다. 하작의 이런 주장은 한유가 쓴 마지막 구절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한유는 당시 단약 복용의 폐해 사례를 열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사례들은 경계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此可以爲誡者也)」라고 덧붙여 세상 사람들을 경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명나라茅坤은 「선생이 이우를 기록하면서 그가 비약을 복용한 한 가지 사실만을 끄집어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았는데, 역시變調이다」⁵²⁾라고 논평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이 있다. 이 글에 대하여 남송 사람 吳子良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내가 退之가 지은 〈王適墓銘〉을 보았더니, 侯高가 딸을 시집보낸 일 한 가지를 기술하였는데, 200자 남짓하다. 이것이 어찌 후세에 보여줄 만하겠는가? 그렇지만 퇴지가 지은 수십 편의 묘지명은 때로는 풍간과 권면을 부쳤으니 사실 근거도 없이 칭송만 늘어놓지는 않았다.(吾觀退之作王適墓銘, 載娶侯高女一事, 幾二百言. 此豈足示後耶? 然退之作銘數十, 時亦有諷有勸, 諒非特虛美而已.)⁵³⁾

〈시대리평사왕군묘지명〉은 王適이 處士인 侯高의 딸에게 장가를 들면서 자신의 신분을 벼슬아치로 속여 결혼 승낙을 받아내는 비상식적인 에피소드를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오자량은 「어찌 후세에 보여줄 만하겠는가?」라고 하여, 한유가 기술한 내용은 비지문의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

51) 何綽《義門讀書記》卷4〈評語〉.

52) 茅坤〈韓文·評語〉: 「公誌李君而獨撮其服泌藥一事, 以爲世誡, 亦變調也。」(《唐宋八大家文鈔》卷13)

53) 吳子良《荊溪林下偶談》卷1〈退之作墓銘〉.

러나 오자량은 한유는 의도적으로 글을 이렇게 구성하였고, 그것은 공간이나 권면의 의미를 부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청나라 사람 하자도 같은 관점을 피력하였다.

「처사 후고가 자기 딸을 시집보내기 전에」부터 「딸을 왕적에게 시집보냈다」까지는 남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이 궁핍한 처지에서 딸을 벼슬아치에게 시집보내려고 마음먹고 출가시키기까지를 묘사한 것이다. 그 정조는 서글프지만 후고와 왕적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 마음이 맞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기록하였으니 글이 무척 생동감이 넘친다. 아내를 얻는 일을 벼슬아치를 사칭하며 기어코 얻어냈으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겠는가? 이런 일을 기록하여 그 궁핍함을 드러낸 것은 일은 작아도 의미는 뚜렷하다고 말하는 것이다.(初處士將嫁其女，至以女與王氏，懷奇之人，困於資地，思女嫁官人，至爲人給，其情亦既可悲，而兩人性情反適相合，因而記之，乃極跌宕，一妻耳，猶謾言官人而乃得之，則何事不困於無資地而不能自出乎？書此以見其窮，所謂微而顯也.)⁵⁴⁾

비지문은 역사기록과 유사하면서도 ‘포양’의 서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을 들추어 기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가 이처럼 긍정적이지 못한 일화를 들추어 비지문에 기술한 것에 대하여 논평가들의 견해는 엇갈리지만, 비지문이 지닌 ‘隱惡揚善’의 본령을 어겼다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훈계’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논평이 우세하다.

V. ‘不再蹈襲’의 파격에 대한 논평

청나라 학자 吳闈生은 “문장을 짓는 것 가운데 금석문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체제를 갖추기도 어렵다.”⁵⁵⁾고 지적한 바 있었다. 금석문은 본래 나름의 정해진 행문의 격식이 있고, 또 일정한 규격의 비석이나 지석에 들어가야 하므로 작

54) 何綽《義門讀書記》卷4〈昌黎集評語〉.

55) 吳闈生《古文範》：「文章之事，以金石刻爲最重，其體亦最難。」陳柱《中國散文史》（上海，上海書店，1987），144쪽에서 재인용.

자가 글을 임의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나라 학자 林紓는 한유의 문장이 지닌 개성을 높이 평가하여, 한유의 글은 「한편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한편의 구조가 생겨났다.(一篇之成, 必有一篇之結構.)」라고 논한 바가 있었다.⁵⁶⁾ 이런 특징은 비지문의 기술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유는 비지문을 기술하면서도 오랜 관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하여 다양한 형식에 담아냈다. 오늘날 학자들이 한유의 비지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파격성과 창조성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⁵⁷⁾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런 평가는 송나라 이래로 논자들이 내놓은 논평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한유가 관습화된 비지문의 규범성을 깨뜨리고 파격을 통하여 다양성을 얻어낸 것에 대하여 역대 논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논평을 남겼다.

첫째, 비지문의 지문과 명사를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운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점을 지적하였다. 청나라 학자 曾國藩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지적하였다.

어떤 것은 먼저 가계를 기술하고 나서 공적과 덕망을 새겼고, 어떤 것은 먼저 그 재능을 드러내고 나서 가계를 언급하였고, 어떤 것은 誌文은 있으나 銘辭는 없고, 어떤 것은 명사는 있으나 지문은 없는데, 모두 한유가 창안한 방법으로, 나중 문인들은 이것을 본받았다.(或先敘世系以後銘功德, 或先表其能而後及世系, 或有誌無詩, 或有詩無誌, 皆韓公創法, 後來文家踵之.)⁵⁸⁾

원나라 사람 潘昂霄가 비지문의 행문격식과 기술사례를 정리하여 지은 《金石例》⁵⁹⁾에 따르면, 비지문은 산문으로 기술하는 誌文과 운문으로 짓는 銘辭로 구성

56) 「一篇之成, 必有一篇之結構。」寧俊紅 〈20世紀古代散文批評範式的演變與反思〉; 《蘭州大學學報》2003年 第6期, 31쪽에서 재인용.

57)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 433-437쪽 참조; 郭預衡 《中國散文史》[中冊](上海, 上海古籍學出版社, 1993), 370-371쪽 참조; 程福寧 《中國文章史要略》(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6), 108쪽 참조; 韓兆琦 《中國傳記藝術》(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1998), 213-218쪽 참조; 趙義山·李修生 《中國分體文學史: 散文卷》(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113쪽 참조; 楊民 《滿川一月: 中國古代散文史》(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1), 119쪽 참조.

58) 曾國藩 《求闕齋讀書錄》卷8 〈韓昌黎集·施先生墓銘〉.

59) 盧見曾 《金石三例》〈序〉: 「碑碣興于漢魏, 迄唐宋以下, 而例則斷自韓子. 潘蒼崖創

된다. 지문에는 기본적으로 이름, 가계, 출신지, 성품, 이력, 사망일, 향년, 가족관계, 장례일, 장지 등의 사실관계를 기술하는데, 기술의 순서는 바뀌어도 무방하다.⁶⁰⁾ 명사에는 대상인물에 대한 작자의 송찬을 담는데, 그 자수와 구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는 격식에서 벗어난 글도 적지 않지만, 이런 행문의 격식을 따르는 것이 비지문의 기술규범이다.⁶¹⁾

한유의 비지문을 보면, 규범적으로 기술한 사례도 있지만⁶²⁾ 기본 사항을 빠뜨리거나 별개의 내용을 더한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빠뜨린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李元賓墓銘〉을 보면 가계, 사망일, 장례일, 처자관계 등이 누락되었는데,⁶³⁾ 칭나라 문장가 姚範은 이것이 「벗들이 장례를 치러주었고, 「장례를 치른 곳이 제 고향이 아니어서」 「가계와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자료의 미비 때문에 간주하였다.⁶⁴⁾ 또 한유의 비지문은 지문과 명사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비지문에서 명사는 史傳에서의 論贊과 유사한 것으로⁶⁵⁾ 작자의 평가가 담기는데, 지문과는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그런데 한유의 비지문 가운데는 명사로 지문을 보완한 기술방식을 운용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施先生墓誌銘〉은 가계와 장지를 명사에 기록하여 지문에서의 미비를 보완하였다.⁶⁶⁾

爲金石例十卷，制器之楷式，爲文之規槩，靡不畢具。」

60) 이것이 正體이고, 만약 기술 항목이 빠지거나 별도의 사항이 더해지면 變體라고 규정하였다. 盧見曾《金石三例》卷1 : 「其他雖書次或有先後，要不越此十餘事而已，此正例也。其有例所有而不書，所無而書之者，又其變例，各以其故也。」

61) 韓愈, 歐陽修, 歸有光 등이 문학성이 높은 비지문을 지은 것은 이런 행문의 격식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문을 이루는 행적의 구성이나 표현의 방식 등에 있어서 한층 문학적 기법을 잘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62) 예컨대 〈集賢院校理石君墓誌銘〉(石洪)은 “성명-출신지-가계-행실과 이력-사망일-향년-가족 관계-장례일-장지-명사”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63) 韓愈《韓昌黎集》卷24.

64) 姚範〈李元賓墓銘〉: 「尋此銘觀之，葬及誌皆友人爲之，葬又非其鄉也，序故不詳其世系及子孫之有無，而書云李觀。」(《授鵝堂筆記》卷42)

65) 方苞〈書韓退之平淮西碑後〉: 「碑記墓誌之有銘，猶史有論贊。」(《方苞集》卷5)

66) 韓愈〈施先生墓誌銘〉: 「先生之祖，氏自施父，其後施常，事孔子以彰。讐爲博士，延爲太尉。太尉之孫，始爲吳人。……縣曰萬年，原曰神禾，高四尺者，先生墓邪。」(《韓昌黎集》卷24)

둘째, 비지문의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운용한 특징을 지적하였다. 먼저 구술을 받아쓰는 독특한 방식을 운용한 〈襄陽盧丞墓誌銘〉에 대한 논평이 있다. 명나라 문장가 唐順之는 「전편에 걸쳐 글을 칭찬 사람의 말만 기록하였을 뿐, 한 가지 일도 더 말하지 않았다.」⁶⁷⁾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글에서는 지문의 대부분을 인적사항 기술에 할애하였는데, 그 첫머리에서 한유는 「范陽 사람 盧行簡의 장례를 앞두고 그의 부모가 직방 원외랑으로 있던 한유에게 묘지명을 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⁶⁸⁾라고 밝히고, 이후에는 노행간의 부모가 하는 말을 받아쓰기만 하고 자신의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유가 이처럼 기술한 것은 노행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료가 없고, 또 부모의 구술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술한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 방식은 그 신뢰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품의 생동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는 대표적 행적을 포착하여 집중적으로 구성한 방법을 지적한 논평이 있다. 송나라 범중엄은 한유가 대표적 행적만으로 구성된 기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퇴지의 〈虢州司戶韓炭墓〉는 한급의 부친과 조부의 능력만 칭송하였고, 〈太學博士李于墓〉는 이우가 단약을 복용한 잘못만을 따졌다. 〈殿中少監馬君墓〉의 경우에는 40년 동안에 삼대를 떠나보낸 일을 애도하였다. (退之之虢州司戶韓炭墓止稱其父祖之能, 太學博士李于墓惟辨其服藥之誤. 若殿中少監馬君墓, 則哀其四十年間哭三世耳.)⁶⁹⁾

한유가 지은 비지문 가운데는 이밖에도 앞서 예시한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을 비롯하여 〈南陽樊紹述墓誌銘〉,⁷⁰⁾ 〈貞曜先生墓誌銘〉,⁷¹⁾ 〈唐故朝散大夫贈司勳員

67) 唐順之〈襄陽盧丞墓誌銘〉: 「一篇俱是求文者自言, 更不言一事.」(《唐宋八大家文鈔》卷15)

68) 韓愈〈襄陽盧丞墓誌銘〉: “范陽盧行簡, 將葬, 其父母乞銘於職方員外郎韓愈, 曰 ……” (《韓昌黎集》卷25)

69) 范仲淹《對牀夜話》卷1.

70) 《韓昌黎集》卷24에 수록되어 있으며, 문인 樊宗師의 묘지명이다.

71) 《韓昌黎集》卷29에 수록되어 있으며, 시인 孟郊의 묘지명이다.

外郎孔君墓誌銘》,72) 등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王適의 집념어린 모습, 樊紹述의 뛰어난 학문과 문학, 孔戣의 강직하고 청렴한 면모, 孟郊의 뛰어난 시적 재능을 보여주는 데에 그 초점을 모았다. 이와 같은 구성 방법은 대상인물의 면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행적만을 선별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개성적 모습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송나라 歐陽脩가 비지문은 평생의 행적 가운데 중요한 행적 한두 가지만을 취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73) 바로 이런 구성과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송나라 李塗는 「한유가 지은 묘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절묘하다.」74)라고 개괄하고, 나아가 「퇴지가 번소술을 기술한 것은 그 글이 번소술을 닮았고, 유자후를 기술한 것은 그 글이 유자후를 닮았다.」75)고 논평하였다. 한편 한편의 글마다 모두 대상인물을 개성 있게 담아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요컨대 한유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들을 정해진 틀에 꿰어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성적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수법을 운용하여 대상 인물의 삶을 담아낸 점을 역대 논자들은 높이 평가한 것이다.

셋째, 사실을 담아내는 ‘기록의 글’인 비지문에 한유가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서정성이 짙은 글로 만들어낸 특징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오늘날 「한유가 지은 인물 전기는 감정이 넘치고 애증이 분명한 서정적 작품이 많다.」76)고 평가되듯이, 한유의 비지문 가운데는 서정성이 크게 확대된 작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殿中少監馬君墓誌〉, 〈太原府參軍苗君墓誌銘〉, 〈女挈壙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앞서 거론한 〈전중소감마군묘지〉에 대하여 역대 논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명나라 郭正域과 청나라 儲欣은 이 글의 특이한 표현기법에 주목하여 그 창조성

72) 《韓昌黎集》卷33에 수록되어 있으며, 관료 孔戣의 묘지명이다.

73) 歐陽脩〈論尹師魯墓誌〉：「其事不可徧舉，故舉其要者一兩事以取信。」(《歐陽文忠公集》卷72)

74) 李塗《文章精義》：「退之諸墓誌，一人一樣，絕妙。」

75) 李塗《文章精義》：「退之誌樊紹述，其文似樊紹述，誌子厚，其文似子厚。」

76) 趙義山·李修生《中國分體文學史：散文卷》(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117쪽 참조.

을 긍정적으로 논하였다.

少監[마계조]으로 말미암아 그 삼대에 걸친 남자들을 언급하였는데, 소감의 생애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교분 때문에 감정이 복받쳤을 따름이니 별다른 격식이다.(因少監而及其三代弟兄, 無一語道少監生平, 止就交情上生感, 另是一格.)⁷⁷⁾

앞에서는 송찬하고 뒤에서는 슬퍼하였으니 묘지의 또 한 가지 격식을 열었다. 후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배우면서도 잘 짓기는 어려운 것이다.(前頌後悲, 又爲墓誌開一格矣. 最後人所易學而難工者.)⁷⁸⁾

하지만 이와는 달리 청나라 林紓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형식이 나오자 후세의 문장가들은 다투어 본떠 마침내 비지문의 본보기가 되었다. 사소한 행적을 긁어모아 모두 작품을 만들었지만 누구도 한유에게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 따위 격식은 우연히 나올 수는 있어도 늘 지어서는 아니 된다. 여차피 (기록할 만한) 사실이 없다면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옳다.(自此體一創, 後之文家, 爭摹倣而成金石之例. 摭拾細碎, 均可成篇, 而皆不及退之者. 凡此等體, 皆可偶而不可常. 既無事實, 寧不作可也.)⁷⁹⁾

입서가 지적한 것처럼 한유가 서정을 개입시켜 비지문을 지은 수법은 훗날 묘지명의 기술에 영향을 주었는데, 송나라 구양수는 이런 기술 기법을 본떠 〈張應之墓誌銘〉과 〈黃夢升墓誌銘〉을 지었다고 전한다.⁸⁰⁾

하지만 비지문의 기술에 작자의 서정이나 의견을 개입시키는 것은 비지문 기술의 본연에서 벗어난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비지문은 사실의 기록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이다.⁸¹⁾ 입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무튼 한유는 ‘기록의 글’인 비지문을 기술하면서 감정을 이입하여 서정성을 확대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는

77) 郭正域《韓文杜律》〈韓文·評語〉.

78) 儲欣《唐宋十大家全集錄·昌黎先生全集錄》卷7.

79) 林紓《韓柳文研究法》〈韓文研究法〉.

80) 唐順之《韓文》：「此歐文黃夢升, 張應之諸作之祖.」(《唐宋八大家文鈔》卷15)

81) 徐師曾《文體明辨·序說》：「正體唯敘事實, 變體則因敘事而加議論焉.」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역대 논자들의 견해가 엇갈리지만, 이것이 비지문의 문학적 발전에는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요컨대 한유가 비지문의 기술에 있어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선보인 과격과 창조적 기술 수법에 대하여 역대 논자들은 대개 그것이 비지문의 고유한 규범성을 해친 것이라고 여기기보다 가치 있는 창조적 시도였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현대의 전기학자 張新科는 중국 고대의 碑傳文은 일정한 틀을 지녔고, 거기에 여러 가지 창조가 더해져 전기문학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다⁸²⁾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유가 시도한 변화는 의미 있는 변화이며, 그것은 비지문이 태생적으로 지녔던 행문의 격식과 편폭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기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VI. 결론

이 글에서는 중국 비지문의 대가로, 杜甫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韓碑杜律’로 불리는 韓愈가 지은 비지문에 대한 후세인의 논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한유는 모두 331편의 산문을 지었고, 그 가운데 비지문은 76편이나 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인물의 신원과 행적을 기록한 묘비, 묘지명, 신도비로, 전기적 성격이 강한 글이다.

송나라 이래로 청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인, 학자들은 한유의 비지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평을 남겼다. 그들이 남긴 논평은 독서기, 문선집, 시문평집, 문체론집, 소품집, 필기집 등 다양한 문헌에 실려 전하는데, 대부분 전문적 평론이 기보다는 독서후기이거나 아니면 작품을 선별하여 신고 자신의 소감을 밝힌 짤막한 논평이다.

논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유가 지은 비지문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을 개괄하여 말하거나 한유의 비지문이 갖는 역사적 지위를 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유의 비지문 한편 한편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논하거나 해당 작품을 읽은

82) 張新科 〈古代碑傳文述略〉: 《中國古典傳記論稿》,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1, 147-149쪽 참조.

소감을 짙막하게 밝힌 것이다.

논평에 나타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역사서에서 한유가 비지문을 번지르르하게 써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기록한 ‘諛墓潤筆’의 논란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것이다. 둘째, 한유의 비지문 가운데 ‘홀륭함은 드러내되 부족함은 덮어두는’ 비지문의 본질적 속성에서 벗어나는 글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것이다. 셋째, 한유의 비지문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파격적 구성과 기술이 비지문이 지닌 전통적 규범이나 고유한 행문 격식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것 등이다.

이런 몇 가지 주요한 문제에 대한 논자들의 평가는 시대에 따른 견해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인적 관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역대 논자들의 논평은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훨씬 많다. 첫째, 대다수 논자들은 한유를 둘러싼 ‘유묘’의 논란에 대하여 그것을 한유 개인의 자질이나 처신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당시의 사회 풍조와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렸다. 둘째, 한유가 지은 일부 비지문에서 대상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거론함으로써 ‘홀륭함은 드러내되 부족함은 덮어두는’ 비지문의 본령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임을 지적한 논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것이 한유가 그런 사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각시키고 가르침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두둔하는 견해도 있었다. 셋째, 한유가 즐겨 사용한 파격이 비지문의 전통적 규범과 고유한 격식을 파괴한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논자들도 있지만 이 또한 대다수 논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낡은 관습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창조적 기술 기법으로 간주하였다.

【參考文獻】

- 《新唐書》
- 《金石三例》
- 《文史通義》
- 《歐陽文忠公集》
- 《文心雕龍》

《文體明辨序說》

《世說新語》

《日知錄》

《全唐文》

《曾鞏集》

《昌黎先生集考異》

《韓昌黎集》

《方苞集》

吳文治,《韓愈資料匯編》北京,中華書局,2006.

郭預衡,《中國散文史》上海,上海古籍學出版社,1993.

陳 柱,《中國散文史》上海,上海書店,1987.

楊 民,《滿川一月:中國古代散文史》北京,清華大學出版社,2001.

張新科,《中國古典傳記論稿》西安,陝西人民教育出版社,1991.

褚斌杰,《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2.

程福寧,《中國文章史要略》拉薩,西藏人民出版社,1996.

趙義山·李修生,《中國分體文學史:散文卷》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陳必祥,《古代散文文體概論》臺北,文史哲出版社,1995.

韓兆琦,《中國傳記藝術》呼和浩特,內蒙古教育出版社,1998.

寧俊紅,〈20世紀古代散文批評範式的演變與反思〉;《蘭州大學學報》2003年 第6期.

劉 衍,〈論唐宋散文的特質〉;《中國古代散文研究》合肥,安徽大學出版社,2001.

줄 고,〈中國 傳統 墓道文의 本質과 記述原理〉;《中國學報》제41집, 서울,韓國中國學會,2000.

【中文提要】

杜甫的詩歌與韓愈的碑誌其藝術造詣都很高,故後人稱爲‘杜律韓碑’來相提并論。本文考察了後代人對韓愈碑誌文的評論。

韓愈共寫了331篇散文。其中碑誌文有76篇,墓誌銘有54篇,墓碑有4篇,神道碑有9篇,廟碑有7篇,碑有5篇。從宋代到清末民國初期,對韓愈碑誌文寫評論的文人有北宋的范仲淹,南宋的李塗、劉克莊、吳子良、黃震,元代的程端禮和陶宗儀,明代的吳訥、唐順之、茅坤、王世貞、郭正域、陳繼

儒, 清代的林雲銘、儲欣、何綽、方苞、姚範、章學誠、曾國藩、過珙等。他們對韓愈碑誌文的評論散見於讀書後記、文選集、詩文評集、文体論集、小品文集、史論集、筆記集、學術論評等各種文獻中。這些文章大部分不是爲了專門評論韓愈的文章而寫的, 而是一些讀書後記, 或者選集作品時選錄韓愈的文章之後寫的一些短評。

評論形式大體上有兩類。第一、敘述韓愈碑誌文的特點或其歷史定位。第二、敘述每個作品的特點, 或寫一些感想。評論的主要內容如下。第一、讀歷史後, 對韓愈‘諛墓潤筆’問題敘述了自己的觀點。第二、韓愈碑誌文中, 對不符合‘隱惡揚善’屬性的事例, 敘述了自己的觀點。第三、韓愈碑誌文裏體現出的破格與創新, 有時與碑誌文的傳統格式形成沖突, 對這一問題提出自己的觀點。

評論者的評論, 并不由於時代的不同而出現很大差異, 而是個人觀點上的差異比較多見, 讚揚比批評更多一些。第一、大部分評論者并不認爲‘諛墓潤筆’爭論是來自韓愈的品性, 而認爲這是當時的社會風氣與錯誤的慣例而引起的。第二、對韓愈一些碑誌文中出現‘隱惡揚善’屬性的沖突事例, 有批評的評論者, 也有‘用爲世誠’觀點來進行辯護的評論者。第三、對韓愈的破格形式破壞碑誌文的規範格式問題, 一些評論者給予批評, 但大部分評論者使用‘不再蹈襲’、‘篇篇不同’、‘一人一樣’、‘纏綿悲惻’等評語來評價那是爲創新而使用的記述技法而已。

【主題語】

韓愈 碑誌文 墓誌銘 唐代散文 後代評論

투고일: 2014. 4. 15 / 심사일: 2014. 4. 20~5. 5 / 게재확정일: 2014. 5. 10